

'어벤져스' 역대 21번째 천만 돌파

10년 공들인 세계관·두터운 팬덤이 인기비결 어린이날 연휴 한몫 ...스크린 독과점 논란 여전

세 번째 '어벤져스' 시리즈인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이하 어벤져스3)가 13일 오후 1시30분까지 누적 관객 수 1천1만8천909명을 기록하며 역대 21번째로 1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어벤져스3' 흥행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마블 스튜디오가 지난 10년간 공들여 구축한 '세계관'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헬크가 파죽지세로 악당을 무찌르는 마블 이야기를 국내 관객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어벤져스' 영화라면 믿고 볼 수 있다"는 신리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어린이날 연휴를 끼고 개봉한 데다 국내외 경쟁작이 없던 점도 흥행 가도를 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개봉 첫 주 일요일인 지난달 29일 스크린 점유율 49.8%, 상영점유율 77.4%를 기록하는 등 스크린을 싹쓸이한 때문에 기록적 흥행도 가능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각 수 합계는 8천410만6천69명에 달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 구조에 많은 사람이 익숙해졌다"며 "마블 캐릭터에 대한 팬덤이 형성됐고 그 팬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어벤져스3'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일례로 영화 첫 장면은 마블 17번째 작품인 '토르 : 라그나로크' 결말에서 바로 이어진다.

전작인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만 본 관객은 토르가 왜 애꾸눈이 돼 아스가르드 난민선을 이끌고 지구로 향하냐 타노스 슬격을 받게 됐는지 알리 만무하지만 마블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팬들은 자발적으로 미리 배경지식을 공부하거나 영화관을 나온 후 모르고 지나친 부분을 검색하는가 하면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보는 'N자 관람'에 나서는 열의를 보인다.

분석이 나온다.

역대 외화 중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 이상을 기록한 작품은 2009년 '아바타'(1362만 명), 2014년 '인터스텔라'(1027만 명), 2014년 '겨울왕국'(1029만 명), 2015년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1049만 명) 등 4편뿐이다.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강남대 교수는 "최근 한국 영화는 '택시운전사'나 '1987' 같은 사회적 의미를 담은 작품이 흥행을 주도했는데 블록버스터 오락영화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며 "'어벤져스3'가 빈 여백을 제대로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피해갈 수 없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

대작 영화가 출현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어벤져스3'도 피하기가 못했다.

'어벤져스3'는 개봉 당일 전국 2461개 스크린을 차지하며 스크린 점유율 46.2%, 상영점유율 72.8%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군함도'가 세운 최다 스크린 확보 기록(2027개)을 9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개봉 첫 주 일요일인 지난달 29일에는 스크린 독식 현상이 극에 달했다. 총 2548개 스크린을 차지하며 스크린 점유율 49.8%를 기록했으며, 상영점유율은 77.4%까지 치솟았다.

이날 하루 전국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 4편 중 3편이 '어벤져스3'였다. 이는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멀티플렉스 극장 측은 '어벤져스3' 개봉 초기 예매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스크린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음을 강변한다. 그러나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할 경우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팔릴 만한 영화만 살아남게 돼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이석 영화평론가는 "'어벤져스3'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스크린 독점 때문에 단기간 기록적인 흥행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한 작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데는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00회 맞은 '런닝맨' "함께한 시간만큼 돈독해졌죠"

정철민PD "처음 조연출 배당 ... 판타지 느낌 편안하게 바뀌어"

"400회까지를 돌아보면 한편의 성장드라마 같습니다. 연기자들과는 세월을 함께 보낸 동지 같은 느낌이구요."

13일 400회를 맞는 SBS TV 간판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정철민(35) PD를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만났다.

2010년 7월 방송을 시작한 '런닝맨'(사진)은 400회와 함께 어느덧 8년이 됐다.

정 PD는 "처음에 조연출로 배당받은 프로그램이 '런닝맨'이었는데, 그때 17회였다"며 "판타지 느낌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골곡과 부침이 있어 멤버들과 부둥켜안고 온 적도 있었다"며 "재색이 형(유재석)과 얘기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400회와 함께 양세찬·전소민이 멤버로 합류한 지 1년이 됐다.

정 PD는 "양세찬·전소민이 합류한 첫 회가 제가 메인 PD로서의 첫 연출이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그 전 주 시청률이 역대 최저였다"며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서 새 멤버가 합류하고 포맷이 바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라.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세찬·소민 합류 첫회 이후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전소민은 '내추럴 플+아이디'. 방송과 사석에서의 모습이 똑같다"며 "양세찬은 축구선수 박지성과 비슷해서 눈에 띄진 않지만 없으면 섭렵하다. 세찬이가 들어오면서 기존 멤버들의 역할도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정 PD에 따르면 유재석은 완벽주의자, 김중국은 항상 나를 믿어주는 형, 하하는 멤버 중 가장 어른, 이광수는 늘 착하고 든든한 동생이다. 송지효는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고 지식인은 여유를 주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유재석 씨와는 매년 3~4시간 통화한다. 갑자기 전화해서 아이템을 내놓기도 하고 게스트도 추천한다"며 "연기자 중 그만큼 시청률과 프로그램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런닝맨'은 중화권을 포함해 동남아, 남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정 PD는 "국내 정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름표만 뜯으면 돼서 자막 없이 봐도 웃길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는 유명 연예인이 밥을 뺄뻔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버라이티 예능이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깊은 고민도 묻자, 정 PD는 "멤버들이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더는 이름표 뜯기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몸을 쓰는 것보다 추리 비중이 늘어난 것 같다. 연기자들이 이름표 뜯기엔 나이가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시청률 높았던 아이템을 또 할 것인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것인지 사이에서 매년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10년간 8천400만 명 동원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벤져스3'는 제작사 마블 스튜디오가 2008년 '아이언맨' 이후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구축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0년을 종결시키는 영화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마블 코믹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가상 세계를 일컫는다.

첫 작품인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최신작인 '어벤져스3'까지 지난 10년간 모두 19편 영화가 발표됐다.

모든 작품이 시·공간적 배경과 설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한 작품 스토리가 차기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짜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3'에 앞서 국내 개봉한 마블 영화 18편 누적 관객 수 합계는 8천410만6천69명에 달한다.

하재근 평론가는 "'어벤져스3'에 20명이 넘는 히어로가 등장하지만 영화에서 하나하나 사연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영웅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마블이 10년간 축적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날 덕 보고 경쟁작 알아서 몸 사려

'어벤져스3' 성공에는 영화 외적인 요소도 작용했다. '어벤져스3'는 극장가 비수기로 꺾이는 봄 시즌에 개봉했지만, 어린이날 덕을 봤다. 이번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이어졌다.

사흘 연휴 기간 '어벤져스3'가 불러들인 관객 수는 207만4천914명에 달했으며,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입장한 관객만도 82만867명이었다.

4월 개봉작 중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긴 영화는 '래퍼이즈'(138만 명)와 '바람 바람 바람'(119만 명)뿐이다. 5월 개봉작 중에는 ' 챔피언'이 89만 명을 동원하며 100만 명 고지를 넘보는 정도다.

한동안 1천만 고지를 밟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오락영화가 없던 점도 1천만 돌파 원동력이 됐다.

멀티플렉스 극장 측은 '어벤져스3' 개봉 초기 예매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스크린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음을 강변한다. 그러나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할 경우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팔릴 만한 영화만 살아남게 돼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이석 영화평론가는 "'어벤져스3'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스크린 독점 때문에 단기간 기록적인 흥행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한 작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데는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MBC UHD 단막스페셜 미치겠다, 너땀애!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우리가 만난 기적 (재)	00 12 MBC 뉴스 20 MBC UHD 단막스페셜 미치겠다, 너땀애!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집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과 과제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팔도발상 (재)	00 다큐멘터리 3일 (재)	3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55 닥터 365
2	2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열 (재) 30 2018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트루피 히키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1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뽀뽀 모모야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00 어유만만(재)	05 령캉쇼 1.2.3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시크릿 마더 (재)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채보자들	55 색신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검법남녀	00 기쁜진 멜로
11	20 KBS 뉴스라인 40 신 노년시대 4부작 (재)	10 안병하세요	10 2018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ABU 국제공동제작 CARE6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아리 25 가요베스트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츰 기행 <중국 차츰 기행> 1부 쓰촨, 차의탄생)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사천식 가지볶음, 견새우 볶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2 08:00 엉뚱웅 유치원1~2 08:30 허풍선이 과학쇼(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콘카트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점요(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고기 맛 험(hem)버거>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3:40 배워서 남줄(재) 14:30 똑똑맨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무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뽕뽕 나라, 코코몽 16:15 울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엉뚱웅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마사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스파이더맨 19:30 EBS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소수민족 음식 기행 자연을 닮다, 원년의 맛) 21:30 한국기행 (단팥과 좋아 보약 같은 내 친구) 21:50 EBS 다큐프라임 (책 1부 뽀, 넘겨진 모든 것)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23:55 배워서 남줄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 드라마 (포 더 피플 7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 (음 3월 29일 丙午)

子	36년생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이다. 48년생 지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볼 일이다. 60년생 혼동하기 쉬울 것이니라. 72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84년생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꼭 잡아라. 행운의 숫자 : 30, 53	午	42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54년생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니 만사형통하리라. 66년생 망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78년생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90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86
丑	37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49년생 오리무중이 나 잘 살아야겠다. 61년생 농담이 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73년생 애매해졌다. 85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롭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31	未	43년생 가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55년생 바라던 일이 일시천리로 추진된다. 67년생 완곡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다. 79년생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91년생 관세의 변화를 가져 올만한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70, 69
寅	38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50년생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62년생 남을 의식하며 내밀하게 행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세이리라. 74년생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86년생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45, 19	申	44년생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라. 56년생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68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 이리라. 80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라. 92년생 맹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17
卯	39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51년생 망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하라. 63년생 조금씩 하지 않는다면 길운을 맞으리라. 75년생 새로운 국민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87년생 단일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34, 61	酉	45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57년생 호기가 도래하고 있느니라. 69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81년생 부합하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93년생 우선순위와 역할에 상충점이 없어져야겠다. 행운의 숫자 : 82, 52
辰	40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52년생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64년생 추구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76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88년생 서로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99, 65	戌	34년생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46년생 이루어지리라. 58년생 임정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70년생 조금만 자제한다면 불만함이 사라질 것이다. 82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행운의 숫자 : 64, 48
巳	41년생 먼 길 떠난 과제 앞에 날이 저문 형상이다. 53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라. 65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겠다. 77년생 얽힌 데 달린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9년생 불편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8	亥	35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47년생 검증된 계획이아이란 회고가 있다. 59년생 재물운이 가마히게 갈한 날이 나 잘 해봐라. 71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83년생 작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80, 9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